

# 민주 '민생 입법' 드라이브...기초연금확대·노란봉투법 주력

정기국회 입법과제 7개 압축  
양곡관리법·납품단가연동제 등  
'시행령 통치' 방지 입법도 검토  
박스권 지지율 탈피 주도권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는 등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맞서 다양한 민생 정책을 통해 정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을 높여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으로 모두 민생 관련 법안이다.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인)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 대상률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안 역시 중점 추진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쌀값 폭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할 문제를 남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장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톡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스톡킹차별법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면서 민주 헌정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여전히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민생 드라이브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도 당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도 담겨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정례조사(무선 90%·유선 10% 혼합)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1%로 국민의힘(38%)보다 7% 포인트 낮았다. 2주 전 조사(8월 30일~9월 1일)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34%→31%로 내려앉은 반면, 국민의힘은 36%→38%로 올랐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따른 컨센션 효과가 기대 이하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로 여론의 사정 드라이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제1야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일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실정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며 "민생은 여론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항할 제1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외교 참사” vs “왕실과 조율”...윤 대통령 ‘조문 취소’ 논란 확산

민주당 “교통통제 몰랐다면 무능”

대통령실 “다수 조문록만 작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을 고리로 여론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 대통령이 교통통제를 이유로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장만 참석했다”며 “교통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는데 대책을 세운 것이라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0일(한국시간) 야권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

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문 취소’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왕실과의 조율로 이뤄진 일장”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왕실 입장에선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다.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다.

애초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전날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세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 정상급 인사가 조문록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전용기가 런던에 먼저 도착해 30여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영국 왕실에서 참배 및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순연하도록 요청했고, 저희는 왕실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뉴욕 도착...오늘 유엔총회 연설

자유 연대·경제 안보 중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한국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황준규 주유엔 대사, 정병화 뉴욕 총영사 등이 뉴욕 JFK 국제

공항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 회민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국

제 사회에 기여해온 점과 앞으로 기여할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새로운 복핵 해법으로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한다. 저녁에는 동포들과의 간담회도 마련될 수 있다.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세 양자 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첫 회의 주제

“민생·정책 이슈 주도 노력”

정무수석과 실무당정협의체 합의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20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경 주도론’을 내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전날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된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및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이어 정치 인생 세 번째로 원내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현안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저희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또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이런 법안이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 있어 야당에 뒤처진단 지적이 있어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정책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지도 각별히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당정 간 소통 채널을 위해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청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HONAM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한국학호남진흥원이,

## 호남의 역사·문화에

# 빛을 더할 소중한 옛 자료를 찾습니다.

#### 한국학호남진흥원이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호남권 한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편찬·보급·확산을 통하여 호남학 및 한국학의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을 위하여 공동 설립한 기관입니다.

- 향운·향습 및 소방·보안 안전설비 구축 수장고 운영(5만여점)
- 수장고 소득 및 훈증, 훼손 자료 보존처리 및 영구 복제
- 평판·목록작성·이미지 촬영·상세해제·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정리
- 문화재 지정 협조 및 관리 운영(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345점)

#### ▶자료 기증·기탁 대상

호남지역과 관련된 문중·기관·개인·단체 소장자료 (고문서, 고서, 서화, 유물, 근현대자료)

#### ▶기증 및 기탁 방법

- 기증 : 소유권과 보존관리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일임하는 형태
- 기탁 : 소유권을 소장자가 유지하면서 보존관리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일임하는 형태

#### ▶기증 및 기탁 절차


기증·기탁 문의 → 현지조사 → 기증·기탁 협의 → 수장고 입고

#### ▶기증·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 보관증서 및 감사패 증정
- 최적의 향운·향습시설을 갖춘 수장고에서 보존·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웹서비스 제공
- 자료집 발간 및 학술대회·세미나 개최(다량 기탁자)

#### ▶기증·기탁 문의

전 화 : 062-603-9623 (9618, 9627)  
누리집 : www.hiks.or.kr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4층)



###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학 및 한국학의 진흥과 민족문화 선양에 앞장서겠습니다.